

1. 다음의 유적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사천 늑도 유적에서 반량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청동 화폐가 출토되었다.
- ② 부산 동삼동 패총에서는 주춧돌을 사용한 지상가옥이 발견 되었다.
- ③ 단양 수양개에서 발견된 아이의 뼈를 흥수아이라 부른다.
- ④ 울주 반구대에는 사각형 또는 방패 모양의 그림이 주로 새겨져 있다.

1. 정답 ①

① 늑도는 사천시 삼천포항과 남해군 창선도 사이에 위치한 조그마한 섬으로 패총과 독무덤 · 움무덤 등의 무덤유구, 주로 직사각형 형태의 집터군, 중국계 경질토기 · 일본계 야요이토기 · 삼각형 점토대 토기(덧띠 토기의 종류로 띠를 두르고 마지막에 삼각형 모양으로 접어서 마무리한 토기) 등 각종 토기류, 반량전 · 오수전 · 한(漢)나라 거울 등 13,000여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사천 늑도 유적은 청동기 시대에서 삼한 시대 초기단계의 복합유적으로서 한·중·일 간의 고대 동아시아지역 문화교류의 증거이다.

[오답 확인]

- ② 부산 동삼동 패총은 신석기 시대 유적으로 이른민무늬토기, 빗살무늬토기 등이 발견되었다. 주춧돌을 사용한 지상가옥은 청동기 시대 이후에 나타났다.
- ③ 단양 수양개 유적은 구석기 시대에서 초기 철기시대에 걸친 유적으로 주먹도끼, 돌날몸돌, 솜베찌르개 등이 발견되었다. ‘흥수아이’는 충북 청원 두루봉 동굴 유적에서 발견되었다.
- ④ 울주 반구대 바위그림은 고래 · 개 · 늑대 · 호랑이 · 사슴 · 곰 · 토끼 · 여우 · 거북 · 물고기 · 사람 등의 형상과 고래잡이 모습, 배와 어부의 모습, 사냥하는 광경 등이 그려져 있다. 고령 장거리 바위그림(고령 양전동 알터 바위)에 사각형 또는 방패 모양의 그림, 동심원 · 전(田)자 모양의 십자형 문양 · 가면 모양 등이 표현되어 있다.

2. 삼국시대 정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신라 화백회의는 만장일치 원칙이며 회의의 의장은 상좌평 이다.
- ② 백제는 관품 구별에 따라 자.단.비.녹색의 공복을 입었다.
- ③ 신라는 진덕여왕대 집사부와 창부를 통합해 정무기관인 품주를 설치하였다.
- ④ 국상, 대대로, 막리지 등은 고구려에서 재상의 직위를 지칭 한다.

2.정답 ④

④ 고구려의 재상의 직위는 ‘좌보 · 우보’ → 국상(포악한 차대왕을 시해하고 신대왕을 즉위시킨 명림답부가 최초의 국상이 됨) → 대대로 → 막리지 순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연개소문은 태대대로에 취임하기도 하였다.

[오답 확인]

- ① 신라의 화백회의는 만장일치 원칙이지만 의장은 상대등이다. 상좌평은 백제의 6좌평 중 수석 좌평이다(내신좌평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임)
- ② 백제의 공복은 자 · 비 · 청색이다. 자 · 단 · 비 · 녹색의 공복 체제는 고려 광종대이다.
- ③ 신라는 진흥왕대 품주를 설치하였고 이후 진덕여왕대 군사 기밀을 담당하는 집사부와 재정을 담당하는 창부로 분화되었다.

3. 1898년 관민공동회에서 채택된 헌의 6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외국인에게 기대지 아니하고 관민이 동심 협력하여 전제 황권을 견고케 할 것
- ② 전국의 재정은 궁내부 내장원으로 이속하고 예산과 결산은 중추원의 승인을 거칠 것
- ③ 모든 중대 범죄는 공개 재판을 시행하되, 피고가 끝까지 설명하여 마침내 자복(自服)한 후에 시행할 것
- ④ 칙임관은 황제가 정부에 자문을 구하여 그 과반수에 따라 임명할 것

3.정답 ②

② 관민공동회의 헌의 6조에서는 국가 재정은 탁지부에서 전관하고 예산과 결산을 국민에게 공포할 것을 주장하였다. 광무개혁 당시 탁지부와 농상공부의 재정을 궁내부 내장원에 이관시켜 황실 재정을 강화하였다.

[오답 확인]

①,③,④ 헌의 6조의의 내용에 해당한다.

4. 밑줄 친 내용과 관련된 사실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전일 ㉠세자가 심양에 있을 때 집을 지어 고운 빨간 빛의 흙을 발라서 단장하고, 또 ㉡포로로 잡혀간 조선 사람들을 모집하여 둔전을 경작해서 곡식을 쌓아 두고는 그것으로 진기한 물품과 무역을 하느라 ㉢관소의 문이 마치 시장 같았으므로, ㉣임금이 그 사실을 듣고 불평스럽게 여겼다.

- ① ㉠세자-북경에서 아담 샬과 만나 교류하였다.
- ② ㉡포로-귀국한 여성 중에는 가족들의 천대와 멸시를 받는 이도 있었다.
- ③ ㉢관소-심양관은 외교적 기능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 ④ ㉣임금-전쟁의 치욕을 벗기 위해 북벌론을 적극 추진하였다.

4.정답 ④

④ 밑줄 친 임금은 조선의 인조이다. 북벌론이 적극 추진 된 것은 효종대이다.

[오답 확인]

- ① 밑줄 친 세자는 병자호란 후 청에 인질로 끌려간 소현세자이다. 소현세자는 청에서 아담 샬 등의 서양 선교사와 교류하면서 서양 학문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 ② 청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조선 여성들은 정조를 잃고 돌아왔다 하여 가족들의 천대와 멸시를 받기도 했다.
- ③ 소현세자는 청의 수도였던 심양(청 세조 때 북경으로 천도)에 있는 심양관(심관)에서 생활했는데 이곳은 양국 간의 각종 연락사무나 세폐와 공물의 조정, 포로를 중심으로 한 민간인 문제 등을 다루었다.

5. 다음 <보기>의 밑줄 친 주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운봉을 넘어온 ~중략~ 이 싸움에서 아군은 1,600여 필의 군마와 여러 병기를 노획하였고, 살아 도망간 자는 70여 명 밖에 없었다고 한다. 《고려사》에서 인용.요약

- ① 그들로부터 개경을 수복한 정세운, 이방실, 김득배는 김용의 주도하에 살해되었다.
- ② 조운선이 그들의 목표물이 되어 국가 재정이 곤란해졌다.
- ③ 그들의 소굴인 대마도가 정벌되어 그 기세가 꺾이게 되었다.
- ④ 그들이 자주 출몰하자 수도를 옮기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5.정답 ①

제시문은 고려 말에 이성계가 왜구를 격퇴한 황산대첩에 대한 내용이다. 따라서 밑줄 친 주체는 왜구이다.

① 홍왕사의 변(1363)과 관련된 내용이다. 홍건적의 2차 침략(1361)으로 개경이 함락되고 공민왕이 복주(안동)까지 피난을 오게 되어 홍왕사에 머물렀는데 정세운 · 이방실 · 김득배 · 김용 등은 홍건적을 격퇴하고 개경을 회복하였다. 그러나 서로 군공을 놓고 싸우다가 김용의 계략에 의해 정세운 · 이방실 · 김득배 등이 제거되었고 이후 김용은 홍왕사로 돌

아와 공민왕을 시해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였다(흥왕사의 변 1363).

[오답 확인]

- ② 왜구들은 해안가 마을은 물론 내륙 지방까지도 출몰했고 특히, 조운선이 그들의 목표물이 되었기 때문에 조세를 제대로 운송할 수 없게 되어 국가 재정이 곤란해졌다.
- ③ 창왕 때 박위를 보내어 왜구의 소굴인 대마도(쓰시마 섬)를 정벌하여 그들의 기세를 꺾었다.
- ④ 왜구들의 활동 무대는 처음에 경상도 해안 지역이었으나 점차 전라도 지역으로 확대되었고 고려 말기에는 전국적으로 출몰하는데다가 내륙 지방까지 진출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천도론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6. 다음 중 『성학집요』의 저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기이원론적 이기론을 통하여 이(理)의 자발성이나 독자성을 강조하였다.
- ② 신하는 성학을 군주에게 가르쳐 기질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 ③ 향약의 전국 시행, 수미법의 실시 등을 제시하였다.
- ④ 기자의 행적을 정리한 『기자실기』를 편찬했다.

6.정답 ①

- ① 『성학집요』는 율곡 이이의 저술이다. 이기이원론적 이기론(이발이기수지, 기발이이승지, 이귀기천)을 통하여 이(理)의 자발성을 강조한 것은 이황이다. 이이는 일원론적인 이기론(기발이승일도설, 이통기국, 이기지묘)을 주장하면서 이는 발할 수 없고(작용할 수 없고) 기(氣)가 발하여(작용하여) 이가 그 위에 올라탄다는 것만 인정했다. 따라서 이의 자발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답 확인]

- ② 『성학집요』에는 뛰어난 신하가 성학을 군주에게 가르쳐 그 기질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 ③ 이이는 향약의 전국적 시행과 방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공납을 쌀로 대신할 수 있게 하는 수미법 실시를 제시하였다.
- ④ 이이는 기자의 행적을 정리한 『기자실기』를 저술하였다.

7. 다음의 자료와 관련된 조약에 해당하는 것은?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1. 청·일 양국 군대는 4개월 이내에 조선에서 동시 철병할 것2. 청·일 양국은 조선국왕의 군대를 교련하여 자위할 수 있게 하되, 외국 무관 1인 내지 여러 명을 채용하고 두 나라의 무관은 조선에 파견하지 않을 것3. 장차 조선에서 변란이나 중대사로 두 나라 중 한 나라가 출병할 필요가 있을 때는 먼저 문서로 조회하고 사건이 진정된 뒤에는 즉시 병력을 전부 철수하여 잔류시키지 않을 것 |
|---|

- ① 한성 조약 ② 제물포 조약 ③ 시모노세키 조약 ④ 텐진 조약

7.정답 ④

제시된 조약은 갑신정변(1884) 후 청·일 간에 체결된 텐진조약이다. 이 조약을 청·일 양국은 철수하고 이후 조선 파병 시 서로 통보하여 공동 파병권을 인정하였다.

- ① 한성 조약은 갑신정변 후 조선과 일본에 체결한 조약으로 조선이 일본에게 공사비 신축비와 일본 측의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이다.
- ② 제물포 조약은 임오군란 이후 조선이 일본에게 배상금을 지불하고 일본 공사관 경비 병력 주둔을 허용한 것이다
- ③ 시모노세키 조약(1895)은 청·일 전쟁 이후 청과 일본이 체결한 조약이다. 일본은 이 조약에서 청의 랴오둥 반도와 타이완을 할양받았고, 이에 러시아를 비롯한 독일과 프랑스가 삼국간섭을 하게 되어 일본은 랴오둥 반도를 반환하였다.

8. 다음은 정약용의 토지제도 개혁안의 일부이다. ㉠과 ㉡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법은 시행할 수 없다. (㉠)은 모두 한전이었는데, 수리시설이 갖춰지고 매벼와 찰벼가 맛이 좋으니 수전을 버리겠는가. (㉠)이란 평평한 농지인데 나무를 베어 내노라 힘을 들였고 산과 골짜기가 이미 개간되었으니, 이러한 밭을 버리겠는가. (㉡)법은 시행할 수 없다. (㉡)은 농지와 인구를 계산 하여 분배해 주는 것인데, 호구의 증감이 달마다 다르고 해 마다 다르다. 금년에는 갑의 비율로 분배하였다가 명년에는 을의 비율로 분배해야 하므로 조그마한 차이는 산수에 능한 자라도 살필 수 없고 토지의 비옥도가 경마다 묘마다 달라 한정이 없으니, 어떻게 균등하게 하겠는가.

- | | | | |
|------|----|------|----|
| ㉠ | ㉡ | ㉠ | ㉡ |
| ① 한전 | 균전 | ② 정전 | 여전 |
| ③ 여전 | 한전 | ④ 정전 | 균전 |

8.정답 ④

제시문은 정약용의 『전론(田論)』 중 일부 내용이다. 『전론』에서 정전제(8가구에게 우물 井자 형태로 토지를 분배하고 각각 한 구역씩 경작하게 한 후 가운데 한 구역은 공동으로 경작하여 국가에 조세로 납부하게 하는 제도)·균전제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산지가 많은 우리나라 지형 상 토지를 균등하게 우물 정자 형태로 구획하기 힘들고 더구나 강제로 토지를 몰수하여 분배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전제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균전제를 시행하려면 토지와 인구가 일정해야 하는데 조선은 호구의 증감이 수시로 변하고 토지의 비옥도가 일정하지 않아 시행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여전제를 주장하였는데, 여전제는 30호 정도를 단위로 여(閭)라는 말단 행정조직을 만들고 여 안의 토지는 여민들이 공동한 후 여장이 개인의 노동을 매일매일 장부에 기록해 두었다가 추수가 끝나면 국가에 납부할 조세와 여장의 봉급을 제외한 후 나머지를 일한 시간에 비례하여 분배하는 제도이다.

한편 정약용은 『경세유표』에서 정전제를 주장하면서 정전을 지급하기 위한 양전의 방법 등을 자세하게 수록하였다. 하지만 정약용은 주나라 형태의 정전제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사전(私田) 8결과 국가가 소유한 공전 1결의 형식을 취하여 제도를 운용하거나 아니면 세금을 1/9로 거두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약용의 정전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정약용이 『경세유표』에서는 정전제를 주장하고 『전론』에서는 정전제를 비판하는 모순 관계를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 부분에는 정전제, ㉡ 부분에는 균전제가 들어가야 한다.

9. 조선정부는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에 근대 문물을 살펴보고 국정 개혁의 자료를 모으기 위하여 여러 나라에 사절단을 파견하였다. 각 사절단의 파견 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1차 수신사절 ㄴ. 보빙사 ㄷ. 조사시찰단 ㄹ. 영선사 ㅁ. 2차 수신사절

- ① ㄱ→ㄷ→ㄹ→ㅁ→ㄴ
 ② ㄱ→ㄹ→ㄷ→ㅁ→ㄴ
 ③ ㄱ→ㅁ→ㄷ→ㄹ→ㄴ
 ④ ㄱ→ㅁ→ㄹ→ㄷ→ㄴ

9.정답 ③

ㄱ.1차 수신사(1876년) → ㅁ.2차 수신사(1880년) → ㄷ.조사시찰단(1881년 4월) → ㄹ.영선사(1881년 9월) → ㄴ.보빙사(1883)

10. 다음 지문이 가리키는 신문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러므로 우리 조정에서도 박문국을 설치하고 관리를 두어 외국의 기사를 폭넓게 번역하고 아울러 국내의 일까지 기재 하여 국중에 알리는 동시에 열국에까지 널리 알리기로 하고, 이름을 旬報라 하며...

- ①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으로 1883년 창간되었으며, 한문체로 발간된 관보의 성격을 띠었다.
- ② 최초로 국한문을 혼용하였고, 내용에 따라 한글 혹은 한문만을 쓰기도 하며 독자층을 넓혀 나가고자 하였다.
- ③ 한글판, 영문판을 따로 출간하여 대중 계몽을 통한 근대화를 촉진하고, 외국인에게 조선의 실정을 제대로 홍보하여 조선이 국제사회에서 완전한 근대적 자주독립국가로 자리 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 ④ 국한문 혼용체를 사용한 일간지로 주로 유학자층의 계몽에 앞장섰다.

10.정답 ①

- ① 제시문에서 설명하는 신문은 한성순보(漢城旬報)로 박문국이 1883년부터 1884년까지 발행하였다. 한성순보는 10일간격으로 발행되었으며, 순한문으로 쓰였고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는 관보였다. 갑신정변으로 한성순보가 폐간된 후 박문국에서 1886~1888년까지 국한문혼용체로 한성주보를 발행하였다.

[오답 확인]

- ② 한성주보에 대한 설명이다.
- ③ 독립신문에 대한 설명이다.
- ④ 황성신문에 대한 설명이다.

11. 다음 <보기>의 ()에 들어갈 낱말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고려의 지배층과 피지배층 사이에는 중류층이 자리 잡고 있었다. 중앙 관청의 말단 서리인 (㉠), 궁중 실무 관리인 (㉡), 직업 군인으로 하급 장교인 (㉢) 등이 있었다.

㉠ ㉡ ㉢

- ① 잡류 역리 군반
- ② 남반 군반 역리
- ③ 잡류 남반 군반
- ④ 남반 군반 잡류

11.정답 ③

고려시대에는 지배 체제의 하부 구조를 담당하고 있는 중류층이 존재했는데, 그 종류는 중앙 관청의 말단 이속(吏屬)인 잡류, 궁중 실무를 담당하는 남반, 지방 행정의 실무를 담당하는 향리, 하급 장교인 군반, 역(驛)을 담당하는 역리 등이 있었다.

12. 다음 중 고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국 측 기록인 『관자』나 『산해경』 등에는 고조선과 관련된 기록이 등장한다.
- ② 『삼국지』 <동이전>에 인용된 『위략』에 따르면 연나라가 강성해져 스스로 왕을 칭하자 조선후가 왕을 자칭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다.
- ③ 기원전 2세기 초, 위만은 고조선에 망명해 와 있다가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다.
- ④ 위만조선은 기원전 108년 한나라의 침입에 의해 멸망했고, 이 지역에는 한의 군현이 설치되었다.

12.정답 ②

- ② 『삼국지』 <동이전>에서 인용된 『위략』에는 “연나라가 강성해져 스스로 강해져서 스스로 왕을 칭하자 조선후가 왕을 자칭하였다고 기록되어있다.

[오답 확인]

- ① 고조선에 대한 중국 측 기록에는 『관자』(기원전 7세기), 『산해경』, 『상서대전』(기자동래설), 『사기』(위만과 한사군), 『한서지리지』(8조법) 등이 있다.
- ② 진·한 교체기(기원전 3세기 말)에 연나라 출신의 위만이 무리를 이끌고 고조선으로 이동하였다. 위만은 고조선의 준왕으로부터 서쪽 경계 지역을 얻어서 거주하다가 기원전 2세기 초에 준왕을 내쫓고 고조선의 왕이 되었다(기원전 194년)
- ③ 위만조선은 선진적 철기 문화를 수용하고 중국의 한과 한반도 남부의 진 사이에서 중계무역의 이득을 취했다. 이에 한의 무제가 고조선을 침략했으나 1차 침략은 고조선이 패수에서 크게 이겼다. 이후 고조선의 지배층은 주화론(니계상 삼, 조선상 역계경 등)과 주전론(우거왕, 대신 성기)으로 분열되어 갈등을 겪다가 니계상 삼이 우거왕을 암살하고 도주하였다. 결국 한의 2차 침략으로 고조선은 기원전 108년에 멸망하였고, 한은 4개의 군현을 설치하였다.

13. 다음 지문과 관계있는 단체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이제 폭력의 목적물을 대략 열거하건대, 조선 총독 및 각 관공리, 일본 천황 및 각 관공리, 정탐노, 매국적, 적의 일체 시설물, 이 밖에 각 지방의 신사나 부호가 비록 현저히 혁명 운동을 방해한 죄가 없을지라도 언어 혹 행동으로 우리의 운동을 완화하고 중상하는 자는 폭력으로써 대응할지니라.

- ① 1932년 1월 이봉창은 도쿄에서 관병식을 마치고 돌아가는 일왕 히로히토를 저격하였다.
- ② 1932년 4월 윤봉길은 상하이 흥커우 공원에서 일제의 요인들을 폭살시키는 의거를 결행하였다.
- ③ 1920년 박재혁은 밀양 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는 의거를 결행하였다.
- ④ 1926년 나석주는 식민지 대표 착취 기관인 식산 은행과 동양 척식 주식회사에 들어가 폭탄을 던지고 권총으로 관리들을 저격하였다.

13.정답 ④

- ④ 나석주는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하고 의열단에 가입하였다. 1926년 식산은행에 폭탄을 던져 일본인들을 죽이고 이어 동양척식주식회사 직원들을 사살한 후 폭탄을 던졌으나 불발하자, 다시 조선철도회사에 가서 일본인들을 저격하였다. 추격하는 경찰과 교전을 벌여 일본 경찰 여러 명을 사살한 후 최후에 자결하였다.

[오답 정리]

- ① 이봉창은 한민애국단 소속이다.
- ② 윤봉길은 한민애국단 소속이다.
- ③ 박재혁은 의열단 단원으로 부산 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밀양 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한 의열단원은 최수봉이다.

14. 다음 중 통일신라시대의 사회와 경제 관련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문왕은 관료전을 지급하고 녹읍을 폐지하였다.
- ② 성덕왕대에는 일반 백성들에게 정전을 지급하였다.
- ③ 헌강왕대에 녹읍이 부활되고, 경덕왕대에 관료전이 폐지되었다.
- ④ 일본 정창원에서 발견된 신라 촌락 문서는 서원경 부근의 4개 촌락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14.정답 ③

- ③ 경덕왕은 관리들에게 지급하던 녹봉을 없애고 녹읍을 부활하였다.

[오답 확인]

- ① 신문왕은 왕권을 강화하고 귀족들의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해 수조권만 인정되는 관료전을 지급하고 수조권과 노동력 징발권을 인정하는 녹읍을 폐지하였다.
- ② 성덕왕은 일반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하였다.
- ④ 신라 촌락 문서(민정 문서)는 서원경 부근의 4개 촌락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성별·연령별 인구의 수, 가축의 수, 유실수, 노비 수, 토지의 종류 등을 조사하였다.

15. 다음의 비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오라총관 목극등은 국경을 조사하라는 교지를 받들어 이곳에 이르러 살펴보고 서쪽은 압록강으로 하고 동쪽은 토문강으로 경계를 정해 강이 갈라지는 고개 위에 비석을 세워 기록하노라.

- ① 조선과 청의 대표는 현지 답사를 생략한 채 비를 세웠다.
- ② 토문강의 위치는 간도 귀속 문제와도 관련이 되었다.
- ③ 국경 지역 조선인의 산삼 채취나 사냥이 비 건립의 한 배경 이었다.
- ④ 조선 숙종대 세워진 비석의 비문 내용이다.

15.정답 ①

백두산정계비는 1712년 숙종 대에 청과 조선의 관리가 함께 간도 지역을 답사하고 국경을 정한 내용을 적어놓은 비석이다. 따라서 ①번이 틀렸다.

[오답 확인]

- ② 백두산정계비에는 “서위압록,동위토문” 이라 하여 청과 조선의 국경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19세기 들어서서 청과 조선은 토문강에 대한 해석을 놓고 상반된 주장을 하게 되었는데, 청은 토문강을 두만강이라고 주장하였고 조선은 토문강은 쑹화강의 지류라고 주장하였다. 결국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일제는 1909년에 청과 간도협약을 체결해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해주었다.
- ③ 청이 간도 지역을 자신들의 조상의 땅이라하여 봉금 지대로 설정하면서 조선인들 산삼 채취와 사냥 활동이 제한을 받게 되었다.
- ④ 조선 숙종대에 세워진 비석이다.

16. 조선시대의 교육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왕세자는 궁 안의 시강원에서 교육을 받았다.
- ② 성균관에는 생원이나 진사만 입학할 수 있었다.
- ③ 서울에는 서학, 동학, 남학, 중학이 설치되었다.
- ④ 향교의 교생 가운데 시험 성적이 나쁜 사람은 군역에 충정 되기도 하였다.

16.정답 ②

② 성균관에는 원칙적으로 소과에 합격한 생원과 진사가 우선적으로 입학 자격을 갖지만 4부학당의 우수한 학생들이 승보시를 거쳐 성균관의 하재생으로 입학하기도 하였다. 승보시에 합격하면 소과의 초시를 면제해주었다.

[오답 확인]

- ① 왕세자는 (세자)시강원에서 교육받았다.
- ③ 조선 시대 중등 교육 기관으로는 지방에 향교, 한양에 4부학당이 있었다.
- ④ 군역 회피를 막기 위해서 일정한 성적 이하의 학생들은 군역에 충당하도록 하였다.

17. 다음 저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산림경제』 나. 『색경』 다. 『과농소초』 라. 『농가집성』

- ① 가:홍만선의 저술로 농업, 임업, 축산업, 식품가공 등을 망라하였다.
- ② 나:박세당의 저술로 과수, 축산, 기후 등에 중점을 두었다.
- ③ 다:정약용의 저술로 농업기술과 농업정책에 관하여 논하였다.
- ④ 라:신속의 저술로 이양법을 언급하였다.

17.정답 ③

③ 『과농소초』 연암 박지원의 저술이다.

[오답 확인]

①, ②, ④올바른 설명이다.

18. 고려시대 귀족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귀족 세력은 왕족을 비롯하여 7품 이상의 고위 관료가 주류를 형성하였다.
- ② 귀족은 대대로 고위 관직을 차지하여 사림 세력을 형성 하였다.
- ③ 귀족의 자제는 음서를 통해 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다.
- ④ 향리의 자제는 과거를 통하여 귀족의 대열에 들 수 없었다.

18번 ③

③ 5품 이상의 귀족의 자제는 음서를 통해 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다.

[오답 확인]

- ① 귀족 세력은 왕족과 5품 이상의 고위 관료가 주류를 형성하였다.
- ② 사림 세력은 조선 시대에 훈구파와 대립하던 세력이다.
- ④ 향리의 자제도 과거 응시 자격이 주어졌다.

19. 다음의 () 안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일제의 민족분열정책과 자치운동론의 등장에 대응하여, 민족해방운동의 단결과 통일적 대응을 모색하던 사회주의 진영과 비타협적 민족주의 진영은 1926년 (㉠) 선언을 계기로, 1927년 1월 (㉡)를 발기하였다. 이어서 서울청년회계 사회주의자와 물산장려운동계열이 연합한 (㉢)와도 합동할 것을 결의, 마침내 2월 15일 YMCA 회관에서 (㉣) 창립대회를 가졌다.

㉠ ㉡ ㉢

- ① 북풍회 정우회 고려 공산 청년회
- ② 정우회 신간회 조선민흥회
- ③ 정우회 근우회 고려 공산 청년회
- ④ 북풍회 신간회 조선민흥회

19.정답 ②

치안유지법(1925)의 제정으로 사회주의 단체의 활동이 어려움에 처하고, 자치론의 증가로 민족주의 진영 내에 타협적 세력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회주의 진영과 비타협적 민족주의 진영의 연대 필요성이 고조되었다. 1926년 사회주의 단체인 정우회가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세력의 연대를 주장한 ㉠‘정우회 선언’을 발표한 것이 큰 계기가 되어 1927년 1월 ㉡신간회가 발기하였고 여기에 서울 청년회계 사회주의 세력과 물산장려운동계열이 연합하여 1926년에 조직한 ㉢조선민흥회가 합류하여 1927년 2월 15일 신간회가 창립 대회를 열었다.

[오답 확인]

북성회는 동경 유학생들 중심으로 조직되었고(1924), 국내의 북풍회로 연결되었고 화요회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이후 화요회와 북풍회 등이 조선공산당을 조직하였고(1925) 여기에 서울 청년회계는 불참하였다.

1925년 4월 18일, 조선공산당을 결성한 다음날, 서울 박헌영의 집에서 10개도 28개 세포회의 대표 19명과 조선공산당 대표 1명(조선공산당 중앙집행위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려공산청년회 창립대표회를 개최했다.

20.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에서 결정한 한국정부 수립 방안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 미·소 공동위원회 개최
 - ㄴ. 미·소 공동위원회와 임시민주정부 협의 하에 미, 영, 중, 소에 의한 신탁통치 방안 결정
 - ㄷ. 미·소 공동위원회와 한국의 정당 및 사회단체의 협의
 - ㄹ. 임시민주정부 수립

- ① ㄱ→ㄷ→ㄴ→ㄹ ② ㄱ→ㄷ→ㄹ→ㄴ ③ ㄷ→ㄱ→ㄹ→ㄴ ④ ㄷ→ㄹ→ㄱ→ㄴ

20.정답 ②

모스크바 3상 회의는 1945년 12월 16일부터 25일까지 소련의 모스크바에서 미국·영국·소련의 3개국 외상이 한반도의 신탁통치 문제를 포함한 7개 분야의 의제를 다룬 회의이다. 이 중 3번째 의제가 한국 문제에 관한 것인데 크게 4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1.조선을 독립국가로 재건설하며……조선 임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할 것
 - 2.조선 임시정부 구성을 원조 및 적절한 방책을 초안 구체화를 위하여 미합중국 사령부, 북조선 소련 사령부의 대표자들로 공동위원회 설치할 것
 - 3.최고 5년 기간의 4개국 신탁통치 협약을 작성하는 데 대해 미·영·소·중 정부와 공동으로 참작할 수 있게 조선 임시 정부와 협의 후 제출, 4.2주 이내에 미국과 소련 사령부 대표 회의 소집
- 이러한 상황에서 먼저 미·소공동위원회 개최 → 미·소 공동위원회와 한국의 정당 및 사회단체의 협회 → 임시민주정부 수립 → 미·소 공동위원회와 임시민주정부 협의 하에 미·영·중·소에 의한 신탁통치 방안 결정 순으로 한국 정부 수립 방안이 논의되었다.